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12월 넷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팀 과 승격 추진 [메디파나뉴스]

중국 규제에도 韓화장품 기업, 내년 실적 전망 '맑음' [아시아경제]

“내년 화장품 내수·무역 큰 차질없다” [약업닷컴]

〈해외화장품시장동향〉

성장하는 캐나다 화장품 시장, 한국산 브랜드 우뚝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법령정보 17

협회 업무추진현황 19

행사 소식 23

회원사 뉴스 26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팀 과 승격 추진('16.12.19)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자치부에 의료기기·화장품산업을 담당하는 정식 과 신설을 요청했음
- 의료기기산업과 화장품산업이 날로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 과 형태로 있어야 한다는 논리임

- 관련링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255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지방자치단체 '화장품·뷰티산업 조례' 증가('16.12.13)

-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http://www.elis.go.kr>)'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12건(훈령 1건 제외)으로 나타났음
-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3건으로 2015년에 가장 많이 제정됐음

-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201886>

한·베트남 FTA 1년..."화장품 하면 한국 연상"('16.12.19)

- 오는 20일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베트남 현지인들이 화장품이나 음악, 패션 등의 단어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 코트라(KOTRA) 호찌민 무역관은 현지 시장조사 기관인 'Q&ME'를 인용해 베트남인 515명에게 각 단어를 주고 가장 먼저 연상되는 나라를 물었더니 '화장품'이라는 단어에 46%가 한국을 생각했다고 18일 밝혔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184000003.HTML?input=1195m>

식품·백화점·제약업체...너도나도 뛰어드는 화장품 시장('16.12.12)

- 기업들이 너도나도 화장품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경기침체 장기화로 성장이 멈춘 경제 상황과 달리 'K-뷰티' 열풍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은 커지고 있어서이며, 식품·담배·유통기업들 뿐만 아니라 제약업체도 화장품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다 화장품 시장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며 "하지만 화장품업체들이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그만큼의 위험도 따르는 업종"이라고 지적했음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1119581977568>

중국발 공포 대비?, 상장 화장품사 3분기 마케팅 비용 줄었다 '(16.12.8)

- 올 3분기 국내 22개 화장품 관련 상장사(코스피·코스닥)의 평균 판매관리비는 80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6% 늘었음
- 뷰티누리(화장품신문)닷컴과 약업닷컴이 22개 화장품 상장사의 3분기 판매관리비(연결기준)를 분석했음

-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201735>

"화장품 샘플 체험하세요~"...본품 강매 품수 성행 '(16.12.19)

- 전화를 통한 화장품 샘플 체험단 모집이 사실상 강매로 이어진다는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음
- 공통된 내용은 전화상으로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보낼테니 체험해본 후 마음에 들면 본품을 구매하라"는 권유로 동의를 받은 후 실상은 본품과 샘플을 같이 보내 상품 개봉을 빌미로 강매를 진행하는 식임

- 관련링크: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4654>

보건산업진흥원, 내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보건산업 생산실적 37조원 예상 '(16.12.1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내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생산실적을 올해 34억9000만원 대비 6.6% 성장한 37조 2000억원으로 예측했음

-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2~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 관련링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214020018616>

"실적 만회한다" 화장품 업체, 연말 장사에 사활 '(16.12.19)

- 화장품 업체들이 연말 장사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 세일에 돌입했음
- 통상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은 전제 매출 가운데 4분기 실적 비중이 높으며, 겨울 상품 가격대가 높기 때문임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1411020014195>

중국 규제에도 韓화장품 기업, 내년 실적 전망 '맑음' '(16.12.19)

-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 시장을 통한 매출 증대로 고성장세를 보였으며, 중국은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한국의 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약 10억달러로 최근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음
-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매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와 호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1210032141582>

K-뷰티, 中 점유율 6.3%까지 늘린다! ('16.12.19)

-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2017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지난 2013년의 2.4%에서 2017년 새해에는 6.3%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음
- 한국 ODM 업체 역시 중국 생산량 비중을 2013년 28%에서 2017년 38%까지, 중국 화장품 시장 기여도는 2013년 3.3%에서 7.9%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한국-화장품-내년-중국-점유율-6-3-늘린다/>

“내년 화장품 내수·무역 큰 차질없다” ('16.12.1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17년 KHIDI 보건산업전망 포럼’이 14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개최됐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건산업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래 성장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2017년에는 활발한 신약개발, 기술수출, 미국·EU 등 선진국 수출 본격화, 바이오 펀드 조성 등이 이어지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힘

-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201991>

○ 국내외 정보

◆ 연도별 수출입 총괄

(단위: 천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출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수입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2005년	271,897	6.0	596,900	9.9
2006년	289,448	6.5	693,399	16.2
2007년	313,823	8.4	762,360	9.9
2008년	383,076	22.1	860,287	12.8
2009년	451,152	17.8	859,175	-0.1
2010년	791,399	75.4	1,032,429	20.2
2011년	813,978	2.9	1,203,465	16.6
2012년	977,866	20.1	1,239,181	3.0
2013년	1,231,289	25.9	1,275,188	2.9
2014년	1,873,570	52.2	1,386,355	8.7
2015년	2,910,136	55.3	1,397,171	0.8
2016년 1월 ~ 11월	3,794,476		1,312,350	

* 자료: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16)

◆ 2016년 월별 수출입 총괄

(단위: 천불,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출	238,435	221,331	394,922	359,994	338,259	360,213	335,685	361,460	415,489	394,988	373,700
수입	105,727	111,707	129,476	116,720	118,355	117,882	106,537	138,713	121,587	122,823	126,193

* 자료: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16)

○ 화장품 관련 기관 소식

※아래 자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신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사업

- 제2편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 I -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던 지난 제2편(코스메틱 리포트 37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지식재산 금융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금융 지원 사업은, 신청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에 기반하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수와 금융지원 종류에 따라 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투자연계 및 사업화연계 사업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및 투자연계 사업은 매년 1~2월경에 지원 사업이 공고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연계 사업은 매년 1차(2~3월경) 및 2차(6~7월경) 정시 공고를 통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평가비지원 (만원/건)	보증/대출/ 투자한도	보증/대출/투 자기관
보증연계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500 (VAT 자부담)	최대 10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IP담보대출 연계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500 정부/은행 각250지원 (VAT 자부담)	최대 50억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투자연계	투자유치를 검토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평가비90% 최대1,350 (10%VAT자부담)	없음	투자기관 ¹⁾
사업화 연계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평가비70% 최대5,000 (30%VAT자부담)	없음	없음

1) 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해외투자자 등

보증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그 지원절차(그림1 참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업이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유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보증 지원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예비평가를 수행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예비선정된 기업의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합니다. 이후 발명진흥회의 비용 지원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평가기관²⁾에서 보유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보증기관은 보증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림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 지원절차】

IP담보대출연계 사업은 해당 기업이 보증기관 대신에 협약은행(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또는 기업은행)에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보증연계 사업과 다르며, 이후의 절차는 보증연계 사업과 유사합니다.

투자연계 사업은 해당 기업이 투자기관과 투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에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지원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절차는 보증연계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발명의 평가기관이 작성한 기술가치평가결과보고서가 투자기관에 제공되고, 투자기관은 이를 투자심의에 활용하게 됩니다.

2)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웍스,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 등 총 13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중임 (2016.12.12. 기준)

사업화연계 사업은 해당 기업이 발명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을 진행하고,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첨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차 심의(서류) 및 2차 심의(발표)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여 작성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선정된 기업에 제공합니다. 향후 기업은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책 중에서 ‘지식재산 금융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 및 문의처에 사업명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및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35, 2938, 2947 〈관련사이트〉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	--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성장하는 캐나다 화장품 시장, 한국산 브랜드 우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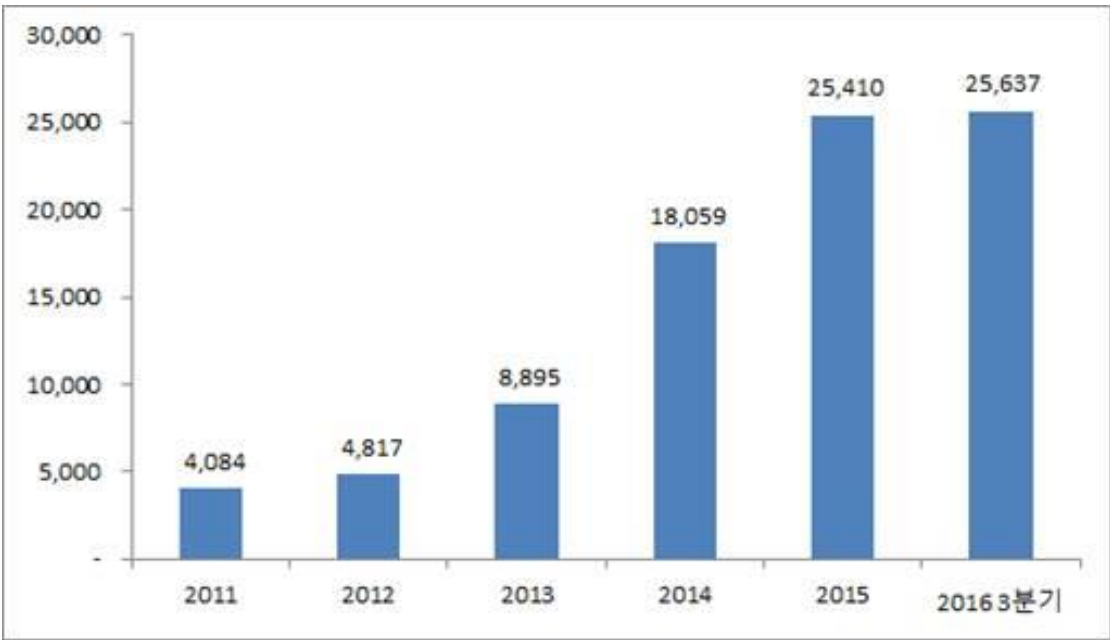
- FTA 관세 철폐, 한류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수출 급증 -
- 캐나다 보건당국 화장품 규정 개정예 사전 대비 필요 -

□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1.1.)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 대 캐나다 수출 급증

- 금년('16)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화장품(HS Code 3304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563만 달러 기록
- 작년('15) 수출은 2,541만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57.9% 가파른 성장세 지속

한국산 화장품 對캐나다 수출 추이

(단위: US\$ 천)



자료: 캐나다 통계청(HS Code 3304 기준)

- 지난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캐나다 측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내년('17)부터 무관세 적용 예정
 - FTA 발표 이전 부과되던 6.5% 관세가 작년('15) 4.3%, 금년('16) 2.1% 등 단계적 철폐

캐나다 화장품 수입관세 부과현황

(단위: %)

관세율	적용국가	2015	2016	2017
최혜국대우관세(MFN)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	6.5	6.5	6.5
멕시코-미국관세(MUST)	미국, 멕시코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일반특혜관세(GPT)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한국특혜관세(KRT)	한국	4.3	2.1	무관세

자료원: 캐나다국경관리청(HS Code 3304.99.90)

□ K-Beauty 돌풍 확산에 따라 현지진출 증가

- 아시아계 소비자를 진원지로 발생한 한국산 화장품 인기몰이(K-Beauty Syndrome)도 주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
 - 성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능과 디자인의 차별화가 포인트
- 한국산 브랜드는 Sephora, Hudson's Bay, Walmart, Shoppers Drug Mart 등 현지 주요 화장품 유통체인에 진입하고 있음.
 - 대표 유통체인인 Sephora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매장에도 한국산 화장품 코너를 별도로 운영
- LG생활건강이 직영 브랜드 The Face Shop 매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콜마는 캐나다 OEM제조사인 CSR 지분을 인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과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
 -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이 한국산 수출 품목의 90% 이상인 가운데 최근 아이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 2015년 기준 캐나다 화장품 시장 수입규모는 13억 달러이며, 지난 4년간 연평균 7.7% 성장
 - 한국산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음.

□ 천연소재 기능성 화장품 수요증가 등 시장 다변화

- 식품 등 다른 생활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시장에서도, 자연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선호현상 심화
 - 여성 및 남성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합성(Synthetic)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
- 새로운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30대 이하 '밀레니얼(Milenial)' 세대에서 미용에 관한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천연 원료를 사용한 고가 화장을 기꺼이 구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세포재생, 주름제거 등 특수한 효과를 강조한 제품들이 사용 방법(시간)과 대상 연령층 별로 세분화 되고 있으며, 재질 역시 크림, 젤, 에센스 등으로 다양화
- 수요 세분화 현상 역시 한국산 제품의 캐나다 시장 신규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새로운 기능에 대한 마케팅이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촉발하고 있고 품질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 보건부 화장품 등 셀프케어 제품규정 개정계획 발표

- 지난 2016년 10월 3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약품 등 셀프케어(Self-Care) 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화장품 등 셀프케어 제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개정 계획안을 발표
 - 연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개정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실제 법안이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임.

- 동 계획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건강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한 검사와 표기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
 - 보건부가 발표하는 화장품 유해 성분 목록(Hot-list)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캐나다 화장품 유해 성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www.hc-sc.gc.ca/cps-spc/cosmet-person/hot-list-critique/hotlist-liste-eng.php>
- 셀프케어 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화장품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카테고리에 포함 되어 있음.
 -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이 새롭게 요구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성분표기와 과대 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전망

셀프케어 제품 위험등급 구분내역

위험등급	내용	제품 예시
높음 (Higher Risk)	- 캐나다 보건부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제조업체는 안정성, 품질, 효능 등 과학적 증빙자료 제출	일반 의약품
중간 (Moderate Risk)	- 안전성 관련 라이선스 취득 필요	감기약, 통증완화제, 알러지약
낮음 (Lower Risk)	- 캐나다 보건부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제조업체는 성분, 표기 등 자료 제출	화장품, 비타민, 구강용품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부에 성분, 표기 등에 관한 내용 신고가 의무 사항
 -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은 필요 없으나 제품 용기 표면에 성분과 함량, 유통기한, 사용방법, 유의사항을 비롯해서 제조업체 연락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함

□ 시사점

-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우리 업계와 관계 기관의 K-Beauty 마케팅 활동 역시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한국산 브랜드 프리미엄도 높아질 전망
- 지난 12월 3일 한국관광공사가 토론토에서 개최한 K-Beauty 홍보행사에는 200여명의 참가객이 몰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현지의 인기와 관심을 방증

K-Beauty 메이크업 및 제품홍보 행사장면('16.12.3. 토론토)



자료원: 한국관광공사 토론토 지사

- 내년('17)에는 KOTRA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한 행사를 대규모로 기획해 현지에 K-Beauty 돌풍을 확산할 계획
- 상기한 바와 같이 캐나다 보건부가 화장품에 대한 유해 성분 규제와 표기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화장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Rule)이 적용 되고 있는 개방 및 경쟁 시장이어서 우수한 품질과 기능을 보유한 한국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며 캐나다를 기반으로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으로 평가 됨.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캐나다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토론토 지사,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 11. 25.〉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9)

-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예외사항 규정
 -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의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은 예외임.

- 의약품 기재사항 생략 가능한 경우

현행	입법예고안
생략 가능한 경우 1, 2, 3으로 지정	생략 가능한 경우 :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의 경우
1. 내용량이 15그램 및 밀리리터 이하인 제품	
2.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직접 용기 또는 포장	•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직접 용기 또는 포장 - <u>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제조연월일(또는 사용기한)을 제외한 기재사항 생략가능</u> - <u>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만</u>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첨부문서 참조”라는 문자로 <u>표시 가능</u>
3. 이화학적 분석 용품 또는 매장 전시전용 제품	삭제

- 부칙 :
 - 의약품 표시관련 사항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제68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

우리협회는 제68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7. 2. 8 (수) 오전 11시

나.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 볼룸. 끝.

◆ 추진 현황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우리 협회는 12월 13일(화)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에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220개사 220명 교육에 참여하였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제조판매관리자가 매년 1회씩 반드시 수료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상반기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생이 하반기 들어 크게 몰리게 되어 12월 26일(화) 추가 교육을 편성하게 되었다.

현재 12월 교육은 모두 조기 마감되었으며, 12월 26일(화) 추가 교육에 대한 사전접수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12월 26일(화)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우리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12월 23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19개의 화장품 성분명을 표준화하였다.

연번	성분명	영문명
1	피네인다이올	Pinanediol
2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7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94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95	sh-Polypeptide-7 sh-Polypeptide-94 sh-Polypeptide-95
3	트라이데세스-15	Trideceth-15
4	락토바실러스/망고스틴과피발효여과물	Lactobacillus/Mangosteen Pericarp Ferment Filtrate
5	카페익/코코/쿠마릭/망고스틴과피에스터즈	Caffeic/Coco/Coumaric/Mangosteen Pericarp Esters
6	숯추출물	Charcoal Extract
7	하이드롤라이즈드마카뿌리추출물	Hydrolyzed Lepidium Meyenii Root Extract
8	펜타펩타이드-48	Pentapeptide-48
9	불로화추출물	
10	석창포추출물	Acorus Gramineus Extract
11	갯질경추출물	Limonium Tetragonum Extract
12	커피나무잎추출물	
13	커피나무싹추출물	
14	포도/폭스그레이프열매자루수	
15	고욤나무잎수	
16	하이드롤라이즈드(오갈피나무/두충/육계나무)나무껍질/(구기자나무/오미자)열매/(석창포/창출/참당귀/황기/스페인감초)뿌리/당느릅나무뿌리껍질	
17	하이드롤라이즈드(톳/불등가사리/미역/다시마/김)잎/줄기	
18	효모/커피나무열매발효추출물	
19	아세틸올리고펩타이드-2K아마이드	

○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중국소재	베이징신금정기술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재지시대
	베이징화하미풍 화장품기술센터
	북경매리스
	알란
국내 소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해외인증경영센터
	호경물산주식회사
	SMC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붙임2.「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 우리협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이에 모조품 유통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①**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대상국가: 중국, 태국, 홍콩)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 게시글 『16년 K-BRAND 보호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은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고정은 대리(Tel : 02-761-4203, Email : jenko@kcia.or.kr)

①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

- 중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유통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실태조사단’을 구성 및 현지 파견하여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지원

②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 현지 침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모조품 유통 관련 침해 실태 조사 및 신청사에서 원할 경우 현지 정부 기관의 행정 단속 지원

※ 침해 조사 대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방	☐ 분쟁예방 전략 (현지화네이밍 등)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대응	☐ 무단 선등록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해외 무단 先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충북 오송은 국가 유일의 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등 60여개의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위치한 보건 의료행정타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 의료 관련 6개 국책기관이 이웃해 있어 생산부터 인증, 허가까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지역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세계 유일의 연구개발 클러스터입니다.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에서는 연구에서 제품·개발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해 주고, 입주기업은 다양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오송은 경부·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과 20분 거리에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충북은 이 모든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우수기업들과 함께 오송바이오파크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락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2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신규 회원사 소개



케이셀바이오뱅크(주)

- ▶ 회사명 : 케이셀바이오뱅크(주)
- ▶ 대표자명 : 이종성
- ▶ 설립일자 : 2014년 2월 1일
- ▶ 종업원수 : 8명
- ▶ 품목 및 브랜드 : kcellbio
- ▶ 웹사이트 : <http://www.kcellbio.com/>
- ▶ 연락처 : 1599-8998

회사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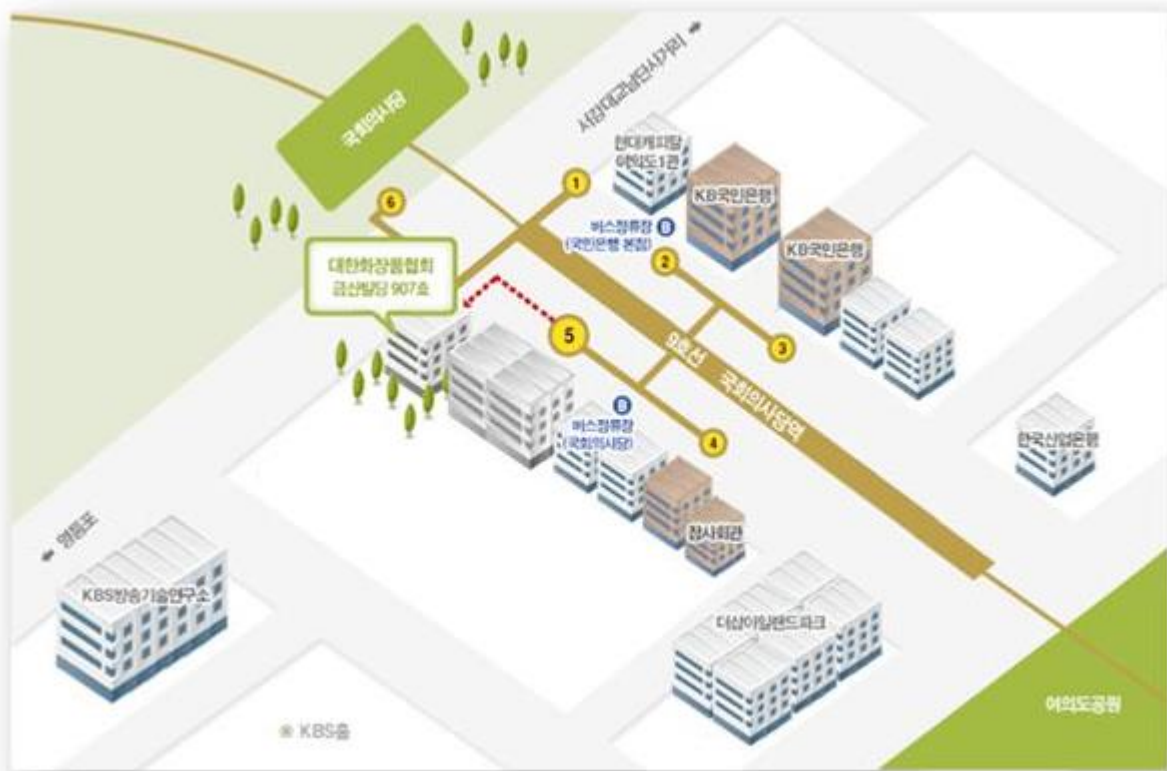
케이셀바이오뱅크는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통해 아프고 다쳤을 때, 근본적인 치료를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